

강진군, 성금 3천만원 산불피해 경북 청송으로 직접 전달

이재민 돕기 사흘만에 모아 “작은 정성이 따뜻한 희망으로 닿기를”
군수·의장·지역 농림축수협도 상당액 기부 군민 마음 한 가득 담아

강진군이 경북 청송 지역의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인 기부 운동을 전개하고 정성으로 모금된 기부금과 구호물품을 청송군 접수처인 청송국민체육센터 재해구호팀에 직접 전달했다.

지난 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일주일간 안동, 청송, 영양, 영덕을 돌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지역 산불이 발생한지 10일. 지나간 하루 끝에 마침내 산불은 진화됐으나 이에 따른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주택이 소실된 주민들의 새로운 터전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로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이재민의 대피 생활은 상당기간 계속될 예정이어서 복구는 물론 일상의 회복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임시 주거시설 마련이 늦어지면서 이재민들은 긴 대피 생활에 심신이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 안타까워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구호단체들의 도움의 손길들이 피해지역에 닿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남도담사 1번지 강진군에서도 이

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후원금품을 신속히 마련해 피해지역에 직접 전달했다.

이번 기부와 나눔은 강진군청 공무원들이 식사 후 마시는 커피 한 잔 값 5,000원을 아껴 점심일반 모은 돈으로 피해주민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적십자 봉사회와 함께 벌인 따뜻한 기부 모금 운동으로부터 시작됐다.

군청 산하 거의 모든 직원들이 1구좌(5,000원) 이상 기부하기 운동에 함께 동참하면서 기부금은 이틀 만에 1,000만 원을 넘어섰다.

군청 공무원들의 작은 참여가 만든 큰 감동을 접한 강진원 강진군수가 이에 100만 원의 기탁금을 내놓아 힘을 보태면서 강진군의회의 의장단에서도 100만 원을 기탁금을 전달했다. 소식을 들은 강진군 관내 7개 농림축수협에서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각각 기부금품을 기탁했다.

칠량농공단지협의회도 600만 원 상당의 김을 전달하는 등 곳곳에서 온정이 이어졌다. 그렇게 모아진 후원금품이 3일 만에 3,000만 원을 넘어섰다.

강진군은 이렇게 모금된 기부금을 지



강진원 강진군수와 강진군의회 서순선 의장, 지역 농림축수협 조합장 등이 3일 오전 강진군청 앞 광장에 모였다. 강진군민들의 정성을 담은 성금과 후원 물품은 대형 화물차량에 실려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청송으로 향했다.

원할 곳으로 경북 청송지역을 선택했다.

경북 청송군은 전남 강진군과 함께 관광선도 도시로 지정된 이후 관광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인연이 있는 곳이다.

지난 3일 오전 9시, 후원물품 기탁식이 열린 강진군청 앞 광장에는 강진원 강진군수를 비롯한 군청 공무원, 강진군의회 서순선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소속 5명의 군의원, 농림축수협 조합장과 칠량농공단지협의회, 적십자봉사회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탁식에서는 기념촬영 등 간단한 행사를 가진 후 청송지역에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배개와 생활품을 담은 물품 박스 450개, 김 등 후원물품을 실

은 차량이 청송을 향해 출발하는 모습을 보며 참여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실어 보냈다. 현금 기부액도 대한적십자광주전남지사를 통해 전액 청송지역으로 지정 기탁된다.

강진원 군수는 “생각지도 못한 재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송군민을 비롯한 경북지역 피해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전한다. 강진군민들의 자치만 정성스런 마음의 선물이 그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라며 기부에 동참해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나눔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강진군민 모두가 마음을 모은 ‘연대의 실천’이자 ‘따뜻한 지방자치’의 모범사례로 남게 됐다.

강진/손경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암 예방의 날’ 맞이 현장캠페인’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에서는 ‘암 예방의 날’(매년 3.21.)을 기념하여 지난 28일(금)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18회 암예방의 날’ 맞이 암 예방 및 금연치료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현장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와 광산구 보건소, 광주금연지원센터, 광주전남지역암센터, 광주전남권역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 등 관내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조기 검진 및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흡연이 각종 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하여, 금연치료지원사업과

연계한 홍보도 함께 진행하였다.

행사에서는 △암 예방 10대 수칙 안내 △국가 암검진 사업 소개△흡연과 암 발생의 관계 △금연치료지원사업 안내 등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각 기관 담당자들이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며 건강 상담도 진행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영희 본부장은 “암은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으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암 예방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특히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리고, 금연 치료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보성군,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돕기 ‘한마음’

공무원 성금 1,500만원 기탁, 축산농가 곤포사일리지 198롤 전달

보성군은 영남 지역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공직자와 지역 축산농가 농협 등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며 민관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군은 3일, 전 실과소 및 읍면 공직자 56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500만 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성금은 ‘보성군청 직원 일동’ 명의로 전달됐으며,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복구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무원의 정성과 함께 민간의 따뜻한 손길도 피해 현장으로 이어졌다. 지난 2일 전국한우협회 보성군지부(회장 윤홍배)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축산농가를 위해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198롤(시가 1,200만 원 상당)을 긴급 지원했다.

이날 지원된 조사료는 차량 6대를 동원해 보성에서 영덕까지 직접 운송·공급됐으



며, 사료 수급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지 축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보성농협 응지지점도 경남 하동군에 음료수를 긴급 지원하며 이웃을 향한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전국한우협회 보성군지부 윤홍배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추가 지원을 통해 지역 축산농가의 조기 복구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성/김윤기 기자



광은, 광주시도시공사 여자핸드볼선수단 광고후원 협약

지역 스포츠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기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2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승남 광주도시공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스포츠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기원하는 광고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은행은 선수단의 성적 향상과 지역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후원금 3천만원을 전달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여자 핸드볼 선수단의 훈련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역 스포츠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FC의 2024 시즌 선전을 지원하며 통 큰 후원금 40억원을 전달했으며, 우리 고장 출신 세계적 스포츠 스타의 타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광주은행 자체 스포츠단인 ‘텐텐(Ten Ten) 양궁단’과 ‘비츠로 배드민턴단’을 운영하며 지역 스포츠 스타의 성장을 돕고 있다.

/오철수 기자

서구, 산불 피해지역에 4천만원 전달

서구아너스 등 각계에서 성금 모아 공동모금회에 전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3일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각계에서 모은 성금 40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서구에 따르면 민관협력 복지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고액 후원자 그룹인 서구아너스에서 1430만원, 서구주민자치회에서

540만원, 서광회에서 300만원, 서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서구새마을회에서 각 200만원, 서창동 보장협의체에서 100만원의 성금을 내놓았다.

또한 서구청 공직자들이 지역을 넘어선 나눔과 연대 실천에 뜻을 모으며 점심일반 1230만원을 모아 함께 전달했다. 앞서



서구는 지난달 31일 신세계이마트, 물마루, 와이마트, 다르다김밥 등 지역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생수와 컵라면, 생

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과 양동시장 상인들이 ‘5·18추념’ 500인분을 만들어 경북 영덕군에 보내기도 했다.

/박석우 기자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한국수력원자력주